

# 도, R&D 국가 공모과제 4건 선정

### 3D프린팅·플라즈마·방사선기술 등... 5년간 국비 등 245억 투입 R&D 추진

3D프린팅, 플라즈마, 방사선기술 등 R&D 국가 공모과제에 4개 사업이 선정돼 고급화 및 상용화 발판이 마련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3D프린팅, 플라즈마, 방사선기술 등 R&D 국가 공모과제에 4개사업이 선정돼 5년간 국비 217억원, 민자 28억원으로 총 245억원을 투입해 R&D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자동차 투명부품 제작용 3D프린팅 장비 및 소재 개발, 초고속 금속3D프린터 장비 및 인공무릎관절 부품 개발, 탄소복합재 상 초고온 세라믹 코팅기술

개발,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개발 등이다.

자동차 투명부품 제작용 3D프린터 장비 및 소재 개발 사업은 자동차융합기술원, 대림화학, 하이비전시스템, 한국광기술원 등이 참여해 투과도 90%이상의 고투명성 소재 개발 및 3D프린터를 응용한 자동차 계기판의 투명부품 등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초고속 금속3D프린터 장비 및 인공무릎관절 부품 개발 사업은 초고속 금속3D프린터 개발, 금속소재 적용 가공 기술 개발, 금속 3D프린팅용 금속소재 대량 생산 기술 개발, 인공

무릎관절을 개발하게 되며 원광이엔텍(주), (주)진썬, (주)티디엠 등이 참여한다.

탄소복합재 상 초고온 세라믹 코팅 기술 개발 사업은 전북대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주관으로 탄소복합재 상의 초고온세라믹 코팅 및 이종물질 접합 기술 개발, 아크젯열풍동을 이용해 2000~3000°C의 고열에서 운용 가능한 우주·항공 산업용 초고온 코팅/접합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개발 사업은 첨단방사선연구소 주관으로 복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복합영상처

리기술을 개발하고 핵물질/폭발물의 식별이 가능한 항공화물용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의 국산화를 통해 테러방지 등 국가보안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향후 인도, 아시아 중심 신시장 개척도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4건의 공모사업 선정은 기존에 구축된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첨단산업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결과물을 기업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도모하여 전북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전북도, 상반기 대학생 직무인턴 모집

### 22일~6월 4일까지 신청

전북도는 세상 밖으로 나갈 도내 대학생들에게 전공 관련 공공기관에서 직무를 체험하고 진로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2017 상반기 대학생 직무인턴'을 모집한다.

'대학생 직무인턴'은 대학생들의 취업무대를 도내지역으로 유도하고자 전공분야의 공공기관에 배치해 인턴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진로계획 등을 세울 수 있는 올해 청년일자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는 대학생 9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인턴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 대학(교) 및 전문대학 재학생이며, 신청자의 전공과목, 자격증 보유 등 객관적인 기준과 거주지를 고려해 선발 배치된다.

신청방법은 도 홈페이지-배너(대학생 인턴 신청)를 클릭해 참고서식을 작성,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

하며, 신청은 22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최종선발결과는 6월 중순경 도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된다.

또한, 지정된 멘토와 함께 전공과 관련된 부서의 주요사업에 참여해 업무 수행 능력을 배양하게 되며, 단순 보조 성격의 업무가 아닌 전공 고유 사무를 통해 취업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인턴의 효율적 관리와 멘토(부서 담당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리 체계를 위해 사전교육(OT) 등을 추진함으로써 인턴관리를 명확히 하고 도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대학생들이 미리 직무를 경험하여 진로를 탐색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참가하는 지역대학생들이 이 사업을 통해 전공 관련 직업에 안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반기 대학생 직무인턴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 홍보 대사 '두 번째 달' 위촉

새만금개발청은 6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의 홍보 대사로 국내 대표 크로스오버 밴드인 '두 번째 달'을 위촉했다.

'두 번째 달'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국내 크로스오버 음악의 외연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푸른 바다의 전설 등의 오리지널 시운드 트랙(OST)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두 번째 달'은 페스티벌의 홍보동영상 제작과 에스엔에스(SNS) 홍보, 월드 뮤직 공연 등에 참여하게 된다.

새만금청 이병국 청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페스티벌의 가치를 알리는 일련이 역할"을 요청했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6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의 홍보 대사로 국내 대표 크로스오버 밴드인 '두 번째 달'을 위촉했다.

##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시설 점검

전북도는 새만금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7개 시·군에 산재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관련업에 대해 10일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 및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총 238개소로 개인하수처리시설 160개소, 분뇨수집·운반업 41개소, 개인하수 설계·시공업 19개소, 개인하수 제조업 7개소, 개인하수 관리대행업체 11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관리기준 준수여부, 기술관리인 선임여부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분뇨수집·운반업 등 관련업체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인재용 기자

# 노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9일 준공 예정

###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되돌아와 쾌적한 환경조성 기여

노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전북도에 따르면 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한 노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오는 19일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송천은 전주의 구도심을 관통하는 도심 하천이었으나 1964년부터 복개해 도로와 재래시장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악취발생과 도심환경이 황폐화되고, 도심지의 열섬현상 등 악영향을 줌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복개된 하천의 복원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후 지난 2008년 환경부 '도심 복개하천 복원' 선도사업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70%를 지원받아 총 2016년까지 410억원을 투입해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다.

건산천과 상류 수계인 노송천에 대해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해 우선적으로 시설이 노후된 중앙시장을 관통하는 노송천 1.1km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1년 말까지 생태하천 복원사

업을 완료했다.

이후 2012년부터 금암동 팔달로 복개천과 건산천 복개중점(430m)을 잇는 2단계 사업을 추진, 건산천 복개 구간 하천바닥의 퇴적물을 걷어낸 뒤 수질정화식물을 심고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천복원공사를 실시했고, 19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하수구로 인식돼 온 노송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변화하면서 하천생태계의 기능 및 자정능력이 회복되고, 안전하고 편리한 수변공간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인재용 기자

## 도, 3월까지 복지사각지대 7692명에 27억 긴급지원

전북도는 단전·단수, 사회보험 체납자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3월까지 약 7,692명에게 27억원을 긴급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주거, 의료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사유를 해소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시군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지원요청을 하거나 이웃 주민이 신고를 하면 48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을 심사한다.

특히, 군산시와 무주군은 지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기간 동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시군과 적극 협력하고 복지 통리장,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운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전북도는 시군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및 공원 등 181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아울러 20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해 올해 1~2월까지 집중 교체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아직까지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8월까지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도록 안내도 병행한다.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